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中 譫語壞病에 關한 考察

김상혁 · 김윤희 · 장현수 · 이준희 · 고병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A Study of Soyangin's Delirious Speaking Bad Disease in Exterior Cold Disease induced from the Spleen Affected by Cold

Kim Sang-Hyuk, Kim Yun-Hee, Jang Hyun-Su, Lee Jun-Hee, Koh Byung-Hee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1.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concept and classification of the Delirious Speaking Bad Disease in the Soyain's Exterior Cold Disease induced from the Spleen Affected by Cold.

2. Methods

Different editions of 『Donguisusebowon』, including the Gabo version and the Sinchuk version, were compared for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the Soyangin disease. And we discussed other studies done previously.

3. Results and conclusions

Soyangin's Delirious Speaking Bad Disease can be understood as shifted symptom of all of Soyangin's Exterior cold disease induced from the spleen affected by cold.

Key Words : Soyangin, Delirious Speech, Exterior Cold Disease induced from the Spleen Affected by Cold,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SCM)

I. 緒 論

東武 李濟馬(A.D. 1837~1900: 이하 東武)는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하여, 사람은 각각性情의 편차에 의해 臟局의 차이가 나타나고 이에 의해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네 體質로 구분되며 四象人은 각각의 生理, 病理的 차이가 있어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차이가 있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각 체질별 表裏病에 대한 病證論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少陽人의 病證은 脾受寒表寒病과 胃受熱裏熱病으로 구분하였으며, 脾受寒表寒病은 다시 少陽傷風證, 結胸證, 亡陰證으로 구별¹⁾하고 있으나,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말미를 보면 “張仲景曰 太陽病不解 轉入少陽者 脇下硬滿 乾嘔不能食 往來寒熱者 尙未吐下 脈沈緊者 與小柴胡湯 若已吐下 發汗譫語 柴胡證罷 此爲壞病²⁾ 依

· 접수일 : 2008년 11월 3일 승인일 : 2008년 11월 11일
· 교신저자 : 고병희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의료원 사상체질과
TEL : +82-2-958-9233 FAX : +82-2-958-9234
E-mail : kmc2516@khu.ac.kr

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위음. 개정증보 사상 의학. 집문당, 서울, 2004:200.

Table 1. 『甲午本』의 少陽人 表裏之表裏病論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위음. 개정증보 사상의학. 집문당, 서울, 2004:193에서 발췌)

	表病		裏病	
	表之表病	表之裏病	裏之表病	裏之裏病
少陽人	大靑龍湯證 小柴胡湯證	腹痛泄瀉證	上消中消下消證	傷寒譫語證 陰虛午熱證

壞法治之”의 인용 후 譫語證(이하 譫語壞病)에 대한 치험례³⁾를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은 頭痛과 熱나는 傷寒 表病에서 전변되어 譫語와 심하면 動風되는 병증들로 乙亥年の 六味湯 치험례부터 己亥年 荊防地黃湯 加 石膏를 사용하는 병증 치료 정신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으며⁴⁾, 表病 結胸證의 險證에서 표현된 燥渴譫語나 裏病 胸膈熱證에서 표현되는 譫語와는 달리 따로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 譫語壞病에 대해서는 공통된 견해가 밝혀져 있지 않고 있다. 이에 필자는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이하 『甲午本』),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이하 『辛丑本』) 및 이전의 연구들을 통해 譫語壞病에 대한 몇 가지 지견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甲午本』, 『辛丑本』, 기존 연구들에서의 少陽人 譫語壞病

(1) 『甲午本』에서의 少陽人 譫語壞病

『甲午本』 「少陽人外感膀胱病論」에 『辛丑本』 9-39조문과 9-40조문에 해당하는 “張仲

景曰 太陽病不解 轉入少陽者 脇下硬滿 乾嘔不能食 往來寒熱者 尚未吐下 脈沈緊者 與小柴胡湯 若已吐下 發汗譫語 柴胡證罷 此爲壞病 依壞法治之”, “傷寒 脈弦細 頭痛發熱者 屬少陽 不可發汗 發汗 則譫語” 부분이 李子建所論 腹痛泄瀉證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나, 다음 조문과의 문맥상에서는 譫語壞病에 주안점이 있지 않고 오히려 汗吐下의 誤治와 小柴胡湯의 부족한 점을 표현하기 위해 인용되고 있다.

『甲午本』 「少陽人內觸大腸病論」에서는 『辛丑本』 치험례 9-41과 9-42에 해당하는 치험례 관련 조문이 譫語證 혹은 傷寒譫語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胸膈熱證과 消渴證 사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⁵⁾.

그리고 『甲午本』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에서는 少陽人의 表裏之表裏病을 구분하면서 張中景所論 傷寒譫語證을 陰虛午熱證과 함께 裏之裏病으로 분류하고 있다⁶⁾(Table 1).

(2) 『辛丑本』에서의 少陽人 譫語壞病

『辛丑本』에서는 『甲午本』에서 각각 다른 위치에 있던 조문들이 하나의 부분으로 합쳐지면서 새로운 치험례가 추가되었다.

少陽人表病 亡陰病 부분 이후에 “張仲景曰

2)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위음. 개정증보 사상의학. 집문당, 서울, 2004:687 에 따르면 “壞證”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李濟馬. 尹完重. 詳校懸吐東醫壽世保元. 信一文化社, 서울, 1972. 및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東醫壽世保元 七版本(청구기호 한古朝68-87)에 근거하여 “壞病”으로 표기하였다.
3)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위음. 개정증보 사상의학. 집문당, 서울, 2004. 기준 조문번호 9-41, 9-42, 9-43, 9-44.
4) 이수경. 『東醫壽世保元』 太少陰陽人의 『病證論』에 관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111.

5) 『甲午本』 10-11 “嘗治 少陽人傷寒發狂譫語證 時屬清明節候 少陽人一人得傷寒 寒多熱少之病 四五日後 午未辰刻 喘促短氣 … 其後 又有少陽人一人得傷寒 熱多寒少之病 有人教服雉肉湯 仍成陽毒發斑 … 前後 用石膏凡十四兩而 未境發狂數日語韻宏壯而 病愈數月然後 方出門庭”
6) 『甲午本』 11-2 “張仲景所論 大靑龍湯證小柴胡湯證 即少陽人表之表病也 李子建所論 腹痛泄瀉證 即少陽人表之裏病也 王好古所論 上消中消下消證 即少陽人裏之表病也 張仲景所論 傷寒譫語證 與輿信所論 陰虛午熱證 即少陽人裏之裏病也”, 甲午本 11-10 “少陽人 裏之裏病大綱有二 一曰 陰虛午熱也 二曰 傷寒譫語也”

Table 2. 『辛丑本』의 少陽人 病證區分(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위음. 개정증보 사상의학. 집문당, 서울, 2004:197에서 발췌)

少陽人	脾受寒表寒病		胃受熱裏熱病	
	少陽傷風證 結胸證	亡陰證	胸膈熱證 上消 中消	下消 陰虛午熱證

太陽病不解 轉入少陽者 脇下硬滿 乾嘔不能食 往來寒熱者 尙未吐下 脈沈緊者 與小柴胡湯 若已吐下 發汗譫語 柴胡證罷 此爲壞病 依壞法治之”, “傷寒 脈弦細 頭痛發熱者 屬少陽 不可發汗 發汗 則譫語” 부분이 사용되고 그 뒤에 『甲午本』에서는 裏病證에 나왔던 두 치험례가 나오고 그 뒤에는 두가지 치험례(9-43, 9-44조문)가 새로이 제시되고 있다. 조문 구성이 바뀌면서 “張仲景曰 太陽病不解 轉入少陽者 脇下硬滿 乾嘔不能食 往來寒熱者 尙未吐下 脈沈緊者 與小柴胡湯 若已吐下 發汗譫語 柴胡證罷 此爲壞病 依壞法治之”, “傷寒 脈弦細 頭痛發熱者 屬少陽 不可發汗 發汗 則譫語” 인용문 부분의 의미도 바뀌어 『甲午本』에서는 汗吐下라는 治法과 小柴胡湯의 부족한 점을 제시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었다면 『辛丑本』에서는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譫語壞病 자체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少陽人表病에서 誤治하거나 혹은 時日을 끌어서 나타나는 결과로서 譫語壞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辛丑本』으로 오면서 少陽人의 表裏病證 구분에서 『甲午本』에서 표현된 傷寒 譫語證은 사라지게 된다(Table 2).

3) 기존 연구들에서의 少陽人 譫語壞病

기존의 病證論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7)의 “『東醫壽世保元』 太少陰陽人의 『病證論』에 관한 研究”와 이8)의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病證論 考察”, 임9)의 “甲午本

(舊本)과 辛丑本(印本)을 중심으로 한 少陰人 病證과 少陽人 病證에 관한 考察”, 한10)의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의 病證論에 관한 分析” 및 한11)의 “少陽人 藥理의 形成過程에 관한 研究 - 『甲午本』과 『辛丑本』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이7)는 少陽人의 表病證에서 譫語壞證을 따로 분류하면서 이를 “身熱頭痛泄瀉가 진번되어泄瀉가 그치고 大便秘하면 譫語動風の 譫語壞證을 유발한다”고 정의하고 다시 “身寒腹痛泄瀉와 身熱頭痛泄瀉를 비교할 때 身熱頭痛泄瀉의 亡陰證만 譫語와 動風の 증상으로 진행된다”고 한정짓고 있다. 즉, 譫語壞病을 身熱頭痛 亡陰證의 變證으로 보고 있으나, 9-44의 荊防地 黃湯 加 石膏의 치험례를 고려해볼 때 身寒腹痛 亡陰證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8)는 『甲午本』 裏病論에서 “傷寒發狂譫語證에 대한 白虎湯 치험례와 陽毒發斑에 대한 石膏 치험례를 제시하였는데 이 두 치험례는 印本에서는 表病證 후미부로 이동하게 된다”는 점과 “傷寒譫語證과 陰虛午熱證을 모두 以邪犯正之病이라 할 수 있는데, 傷寒譫語證은 급박한 병증으로 陰虛午熱證은 완만한 병증으로 그 緩急을 논할 수 있겠다”고 서술하고 있다.

임9)은 “甲午本에서는 (裏病이) 上消 中消 下消와 陰虛午熱 傷寒譫語로 분류하였으나 辛丑本에 와서는 胸膈熱證과 陰虛午熱로 病證을

7) 이수경. 『東醫壽世保元』 太少陰陽人의 『病證論』에 관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8) 이준희·이수경·고병희·송일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病證論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49-61.

9) 임진희·이의주·고병희·송일병. 甲午本(舊本)과 辛丑本(印本)을 중심으로 한 少陰人 病證과 少陽人 病證에 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 62-73.
10) 한경석·박성식.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의 病證論에 관한 分析.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1):34-50.
11) 한경석·박성식. 少陽人 藥理의 形成過程에 관한 研究 - 『甲午本』과 『辛丑本』을 중심으로-. 사상체질의학회지. 2006;18(3):38-48.

나누고” 있다고 하고 『辛丑本』의 少陽人 表病 역시 少陽傷風證과 亡陰證으로 대별하면서 讖語壞病에 대해서는 따로 논하고 있지는 않다.

한¹⁰은 이⁷의 논문에 대해 “少陽人 裏之表病인 大腸病 胸膈熱證에서 讖語, 但熱無寒, 熱多寒少, 寒多熱少의 병리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따로 讖語의 병리기전은 裏之裏病으로 설명하는데 裏之表證과 裏之裏證에서 동시에 설명되는 讖語證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하면서 “東武는 傷寒讖語證을 泛論에서 裏之裏病으로 배속시켜 놓고 病證論에서는 裏之表病의 胸膈熱證 중에서 六味湯과 石膏滑石의 치험례 등을 기술하고 있고, 庚子本(辛丑本)으로 改抄되면서 表病論의 亡陰證 範疇에서 설명하면서 荊防地黃湯을 제시하였는데 甲午本 당시에 亡陰證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하여 “甲午本에서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裏之裏病의 傷寒讖語發狂의 내용이 改抄되면서 亡陰證으로 옮겨가고 많은 내용들이 보충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즉 讖語壞病을 亡陰證에 속하는 내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한¹¹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즉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辛丑本』의 讖語壞病은 특별히 논의되지 않거나 亡陰證에 속하는 變證의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讖語壞病 치험례에 대한 분석

9-41조문¹²⁾ 치험례의 경우 『甲午本』에서는 裏病에 있었으나 改抄되면서 9-42조문¹³⁾과 더불어 表病으로 옮겨진 부분이다. 9-41과 9-42조문을 함께 살펴보면 『甲午本』에서 옮겨오면서 “寒多熱少”, “熱多寒少”의 표현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이⁷는 『甲午本』少

陽人外感表證에서는 寒熱多少의 내용이 있었으나, 『辛丑本』脾受寒表寒病에서는 寒熱多少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寒熱多少의 내용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辛丑本』表病에서 이에 대한 생각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에 대해 한¹¹은 少陽傷風證에 사용하는 荊防敗毒散·荊防導赤散·荊防瀉白散을 비교하면서, “주요약물로써 이 처방들의 차이점을 살펴보면甚하지 않은 火熱證에는 降陰을 위주로 하면서 升陽하는 荊防敗毒散을 사용하고, 조금 甚한 火熱證에는 生地黃의 분량을 늘려 荊防敗毒散보다 清裏熱하여 升陽하는 효력을 높인 荊防導赤散을 사용하고, 甚한 火熱證에는 生地黃·石膏·知母를 모두 사용하여 升陽(清裏熱)의 효력을 높인 荊防瀉白散을 쓴다”라고 논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辛丑本』 少陽人 表病은 亡陰證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寒多熱少”와 “熱多寒少”로 나눌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少陽傷風證에 사용하는 荊防敗毒散·荊防導赤散 및 身寒腹痛亡陰에 사용하는 荊防地黃湯·滑石苦參湯은 “寒多熱少”계열로, 少陽傷風證의 荊防瀉白散과 身熱頭痛亡陰의 荊防瀉白散, 豬苓車前子湯은 “熱多寒少”계열로 묶을 수 있는 것이다(Table 3). 이와 같은 논지에서 9-41과 9-42 치험례의 병증을 살펴보면 그 시작이 각각 少陽傷風證의 “寒多熱少”계열과 “熱多寒少”계열이라 추측할 수 있다. 더 나아가 9-41 치험례의 경우 “喘促短氣”으로 시작하여 “發狂讖語”하는 증상으로 유추해볼 때 “乾嘔短氣” 및 “燥渴讖語”의 증상이 나타나는 結胸證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9-43¹⁴⁾과 9-44¹⁵⁾ 치험례는 『甲午本』에는 없

12) 『辛丑本』 9-41 “嘗治 少陽人 傷寒發狂讖語證 時則 乙亥年 清明節候也 少陽人 一人 得傷寒 寒多熱少 之病 四五日後 午未辰刻 喘促短氣 …”

13) 『辛丑本』 9-42 “其後 又有 少陽人 一人 得傷寒 熱多寒少之病 有人 教服雞肉湯 仍成陽毒發斑 余教服白虎湯 連三貼 而其人 只服半貼 …”

14) 『辛丑本』 9-43 “其後 又有 少陽人 一人 初得頭痛 身熱 表寒病 八九日 其間用黃連 瓜蒌 羌活 防風 等屬 病勢少愈 而永不快祛矣 仍爲發狂三日 病家以尋常例證 視之 而祇用黃連 瓜蒌等屬 又讖語數日 始用地黃白虎湯 一貼 …”

15) 『辛丑本』 9-44 “其後 又有一 少陽人 十七歲 女兒 素證 間有悖氣 食滯腹痛矣 忽一日 頭痛寒熱食滯 有醫 用蘇合元三箇 薑湯調下 仍爲泄瀉 日數十行 十餘日不止 引飲不眠 間有讖語證 時則己亥年 冬

Table 3. 『辛丑本』 少陽人 表病處方의 寒熱多少에 따른 분류

	寒多熱少	熱多寒少
少陽傷風證	荊防敗毒散 荊防導赤散	荊防瀉白散
亡陰證	荊防地黃湯 滑石苦參湯	荊防瀉白散 豬苓車前子湯

고 『辛丑本』에 새로이 추가된 치험례이다. 특히 9-44의 경우 己亥년부터 庚子년까지의 마지막 임상례로 알려져 있다. 9-43의 치험례에서 頭痛身熱表寒病으로 시작하였으나 黃連·瓜蒌·羌活·防風 등의 荊防導赤散類를 사용하였으나 永不快하고 發狂이 시작된 상태에서도尋常히 보고 사용하였으나 낮지 않고 오히려 譫語로 병이 심해졌음을 볼 때 少陽傷風證의 범주가 아니라 亡陰證의 범주, 특히 頭痛身熱의 표현으로 볼 때 身熱頭痛亡陰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9-44의 荊防地黃湯 치험례의 경우 食滯腹痛에서 출발한 병증과 이후 荊防地黃湯에 石膏를 加하여 사용한 것을 볼 때 身寒腹痛亡陰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9-44조문에서 “荊防地黃湯 二貼藥力十倍於知母白虎湯 可知矣”라고 표현한 것은 앞의 모든 譫語壞病 치험례에서 白虎湯보다 荊防地黃湯 加 石膏의 효과가 뛰어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9-44 치험례에 한정하여 身寒腹痛亡陰證에서 출발한 譫語壞病의 경우 단순한 白虎湯보다는 원래 병증에 기반한 荊防地黃湯에 石膏를 가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9-44 치험례로 인하여 『甲午本』에서는 甘遂와 白虎湯을 비교하던 것¹⁶⁾이 『辛丑本』에서는 甘遂와 石膏를 비교하여 表病일지라도 揚手擲足 引飲泄瀉證에는 石膏를 사용한다¹⁷⁾는 내용으로 바뀌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Ⅲ. 考 察

『甲午本』에서는 傷寒譫語證을 裏之裏病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나 『辛丑本』으로 改抄되면서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말미의 譫語壞病으로 정리가 되었다. 이에 대해 이전의 연구에서는 譫語壞病을 少陽人 병증에서 특별히 다루지는 않거나, 혹은 亡陰證 또는 身熱頭痛亡陰證의 變證으로만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각 치험례의 내용을 분석해본 바 네 가지 치험례를 모두 亡陰證의 범주로 묶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크게 대별하면 9-41과 9-42의 치험례는 少陽傷風證에서 출발하여 譫語壞病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고, 9-43과 9-44의 치험례는 亡陰證에서 출발하여 譫語壞病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9-41 치험례는 寒多熱少에 해당하는 少陽傷風證 혹은 結胸證의 범주¹⁸⁾에서 출발한 것으로, 9-42 치험례는 熱多寒少의 少陽傷風證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9-43은 身熱頭痛亡陰證¹⁹⁾에서, 9-44는 身寒腹痛亡陰證에서 출발하여 譫語壞病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膏 裡病 可用石膏 而不可用甘遂 然 揚手擲足 引飲泄瀉證 用石膏 痺風膝寒 大便不通證 用甘遂”

十一月二十三日也 … ”

- 16) 『甲午本』 10-14 “甘遂 破胸膈水結之善藥而 非通大便之好藥也 白虎湯 通大便之善藥而 非破胸膈水結之好藥也 是故 以胸膈水結爲患者 當用甘遂而 不當用白虎湯 以大便不通爲患者 當用白虎湯而 不當用甘遂 蓋 甘遂 膀胱病藥也 白虎湯 大腸病藥也”
- 17) 『辛丑本』 9-18 “甘遂 表寒病 破水結之藥也 石膏 裏熱病 通大便之藥也 表病 可用甘遂 而不可用石

- 18) 『辛丑本』 9-17 “論曰 右張仲景 所論三證 皆結胸病而膈內拒痛 手不可近 燥渴譫語者 結胸之最尤甚證也 飲水水入即吐 心下痞硬滿 乾嘔短氣者 次證也 凡結胸病 皆藥湯入口 輒還吐 惟甘遂末入口 口涎含下 因以溫水 嗽口而下 則藥不還吐 … ”
- 19) 『辛丑本』 9-27 “少陽人 身熱頭痛 揚手擲足 引飲者 此 險證也 雖泄瀉 必用石膏 無論泄瀉有無 當用荊防瀉白散 加黃連 瓜蒌 各一錢 或地黃白虎湯”

Table 4. 『辛丑本』 少陽人 譫語壞病

	寒多熱少	熱多寒少
少陽傷風證	荊防敗毒散 荊防導赤散	荊防瀉白散
亡陰證	荊防地黃湯 滑石苦參湯	荊防瀉白散 豬苓車前子
↓ 誤治하거나 혹은 적합한 치료를 하지 못해 時日을 끌게 되어 胃熱이 熾盛해짐		
譫語壞病		

즉, 少陽人 譫語壞病은 少陽人의 모든 表病 病증에서 誤治하거나 혹은 적합한 치료를 하지 못해 時日을 끌게 되면 變하여 나타날 수 있는 少陽人 表病 公동의 變證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 4). 그리고 이와 같은 變證에는 少陽人의 偏大之臟인 胃熱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譫語壞病 이후 少陽人 表病 마지막 조문에 少陽人病이 火熱로 因함과 變動이 甚速함을 말하여 初證이라도 가벼이 보지 말고 藥을 誤投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²⁰⁾이다. 이를 근거로 하면 譫語壞病의 네 가지 치험례에서 譫語에 이르기 이전에 각 병증에 맞는 적합한 처방을 사용함으로써 譫語壞病에 이르기 전에 미리 치료하였다면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IV. 結 論

少陽人 表病 譫語壞病에 관하여 『甲午本』 과 『辛丑本』 및 선행연구와 치험례 조문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지금까지 少陽人 譫語壞病은 少陽人 病증 논의에서 따로 다루어지지 않거나, 亡陰證 범주에서만 해석되고 있었다.

20) 『辛丑本』 9-45 “論曰 少陽人病 以火熱 爲證故 變動甚速 初證不可輕易視之也 凡少陽人 表病 有頭痛 裡病 有便秘 則已爲重病也 重病 不當用之藥 一二三貼 誤投 則必殺人 險病危證 當用之藥 一二三貼 不及 則亦不救命”

2. 『辛丑本』 少陽人 表病은 少陽傷風證과 亡陰證을 아울러 寒熱多少에 따라 寒多熱少와 熱多寒少로 다시 대별할 수 있다.

3. 少陽人의 譫語壞病은 단지 亡陰證 범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少陽人의 모든 表病 범주에서 誤治하거나 혹은 時日을 끌어 胃熱이 熾盛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變證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V. 參考文獻

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개정증보 사상의학. 집문당, 서울, 2004.
2. 李濟馬. 尹完重. 詳校懸吐東醫壽世保元. 信一文化社, 서울, 1972.
3. 이수경. 『東醫壽世保元』 太少陰陽人の 『病證論』 에 관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4. 이준희, 이수경, 고병희, 송일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病證論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49-61.
5. 임진희,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甲午本(舊本)과 辛丑本(印本)을 중심으로 한 少陰人 病證과 少陽人 病證에 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62-73.
6. 한경석, 박성식.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의 病證論에 관한 分析.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1):34-50.
7. 한경석, 박성식. 少陽人 藥理의 形成過程에

관한 研究 - 『甲午本』 과 『辛丑本』 을 중심으로-. 사상체질의학회지. 2006;18(3):38-48.

8.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體質科, 서울, 2000.